



## 최근 국제 혼인 증가의 특징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국제 혼인 건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내국인 간 혼인은 2015년 약 282,191건에서 2019년에는 약 215,516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국제 혼인의 경우 같은 기간 21,274건에서 23,643건으로 증가하였음
- (성별 특징) 국제 혼인 비중은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추이에는 남녀 간 동조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성은 감소세를 남성은 증가세를 보이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여성의 국제 혼인은 2015년 6,597건에서 2019년 5,95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남성의 국제 혼인은 같은 기간 14,677건에서 17,687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
- (국가별 특징) 국제 혼인 건수의 변화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양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내국인 간 혼인이 201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국제 혼인은 증가하면서 남성의 전체 혼인(내국인 아내 + 외국인 아내)에서 국제 혼인(외국인 아내)의 비중은 2015년 4.95%에서 2019년 7.58%로 크게 증가하였음
  - 여성의 경우 내국인 간 혼인과 국제 혼인 모두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남
- 우리나라는 '결혼 기피 현상 속의 성비 불균형 심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남성의 국제 혼인 의존도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혼인율의 추이를 통해서 볼 때 결혼 기피 현상은 남녀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구조적으로 남성의 국제 혼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우리 사회는 혼인 기피, 저출산 등에 따라 파생되는 인구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제 혼인을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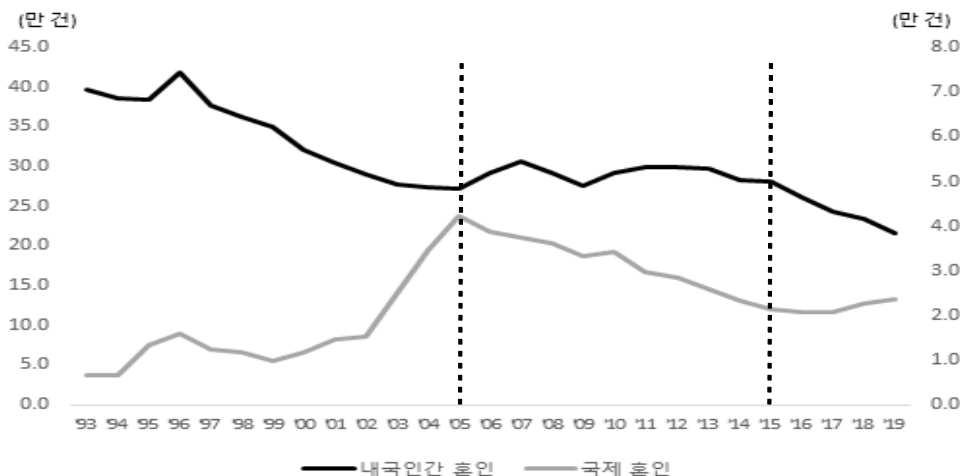
## 1. 검토배경



■ 우리나라의 국제 혼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제 혼인은 전체 혼인<sup>1)</sup>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4.2만 건(전체 혼인 중 비중 13.5%)으로 정점에 도달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0년대 중반에는 절반 수준(2015년: 2.1만 건, 비중 7.0%)으로 하락함
- 2010년대 중반 이후 혼인 적령기 인구 감소와 결혼기피 현상의 확산으로 내국인 간 혼인이 빠르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혼인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 내국인 간 혼인은 2015년 약 282,191건에서 2019년에는 약 215,516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국제 혼인의 경우 같은 기간 21,274건에서 23,643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내국인 간 혼인 건수와 국제 혼인 건수의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본고는 우리나라 국제 혼인의 최근 변화 추이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성별, 혼인 대상국별로 논의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함

1) 전체 혼인은 크게 '내국인 간 혼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여성 and 외국인 남성과의 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과 '여성 and 외국인 남성과의 혼인'을 합하여 국제 혼인이라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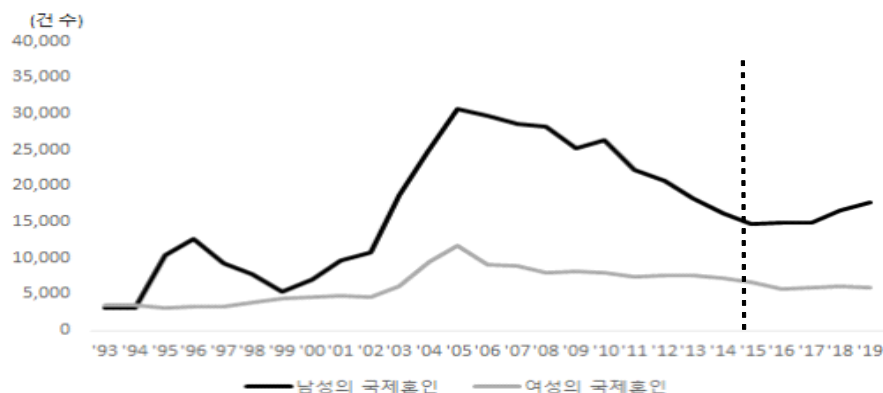
## 2. 국제 혼인의 성별 추이



- 우리나라 국제 혼인의 비중은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변화 추이에는 남녀 간에 동조 현상이 나타남(〈그림 2〉 참조)

- 국제 혼인은 90년대 중반 이후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혼인을 중심으로 급증하였으며, 외환 위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국제 혼인 중 내국인 남성의 비중이 2/3 이상을 유지하여 왔음
  - 농촌 지역의 신부 부족 현상이 국제 혼인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국제 혼인은 여성보다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왔음

〈그림 2〉 성별 국제 혼인 건수의 추이



자료: 상동

- 국제 혼인은 절대 규모 면에서 남녀 간 차이가 크게 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2000년 대 중반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동조현상을 보였음
  - 2005년 남성의 국제 혼인은 30,719건을, 여성의 국제 혼인은 11,637건을 기록하여 각각 최대 규모에 도달하였음
- 반면, 201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국제 혼인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국제혼인은 증가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2〉 참조)
- 여성의 국제 혼인은 2015년 6,597건에서 2019년 5,95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남성의 국제 혼인은 같은 기간 14,677건에서 17,687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전장에서 언급한 국제 혼인 증가세는 남성의 국제 혼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따라서 본고는 최근 남성의 국제 혼인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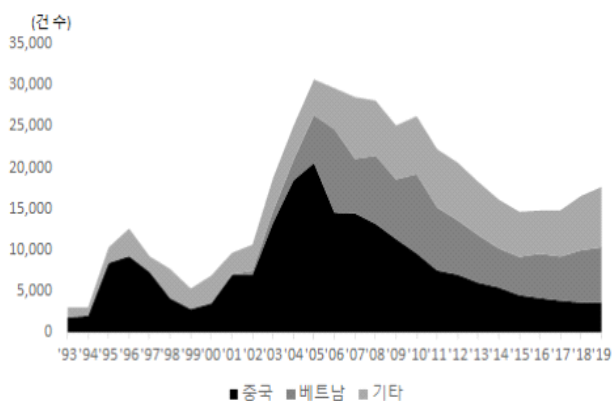
### 3. 국제 혼인의 국가별 추이



- 우리나라 국제 혼인 건수의 변화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양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3>, <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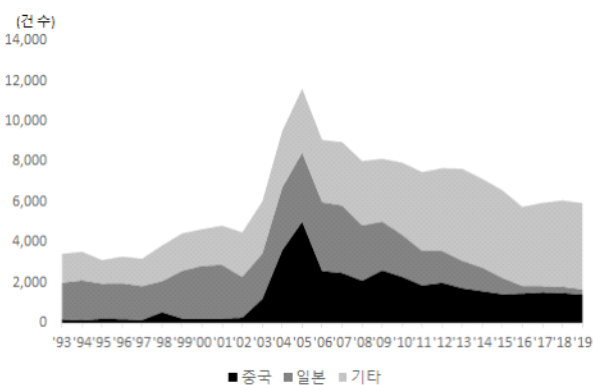
- 남성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중국 및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급증하였으며, 2005년에는 중국 20,582건, 베트남 10,128건을 기록하여 남성의 전체 국제 혼인(30,719건)의 대부분을 차지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의 혼인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 여전히 국제 혼인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 혼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5년 중국 및 일본과의 국제 혼인 건수가 각각 5,037건, 3,423건을 기록하여 여성의 전체 국제 혼인(11,637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sup>2)</sup>
  - 특히, 일본과의 국제 혼인은 크게 감소하여 2019년에는 295건에 그치고 있음

<그림 3> 남성의 상대국별 국제 혼인 추이



자료: 상동

<그림 4> 여성의 상대국별 국제 혼인 추이



자료: 상동

2) 2019년 여성의 국제 혼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미국(24.6%)이며, 두 번째가 중국(23.6%)임. 그러나 미국은 급등락하기보다는 꾸준히 비중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국제 혼인 변화를 주도했다고 보지 않았음

- 중국 및 일본과의 혼인이 전체 국제 혼인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각각 ‘교류 초기 동포들의 대거 유입’과 ‘종교적 사유’<sup>3)</sup>라는 특수한 요인이 작용했던 만큼 최근 그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음
  - 일본과의 혼인은 종교적 사유가 약해지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으며<sup>4)</sup>, 중국의 경우 남녀 모두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류 초기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국제 혼인의 비중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
- 남녀 간에 동조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소수국가 특히 중국과의 국제 혼인이 급속히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추이가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최근 우리나라 남성의 국제 혼인 증가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소수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여타 다른 국가와의 혼인 비중도 내국인에 비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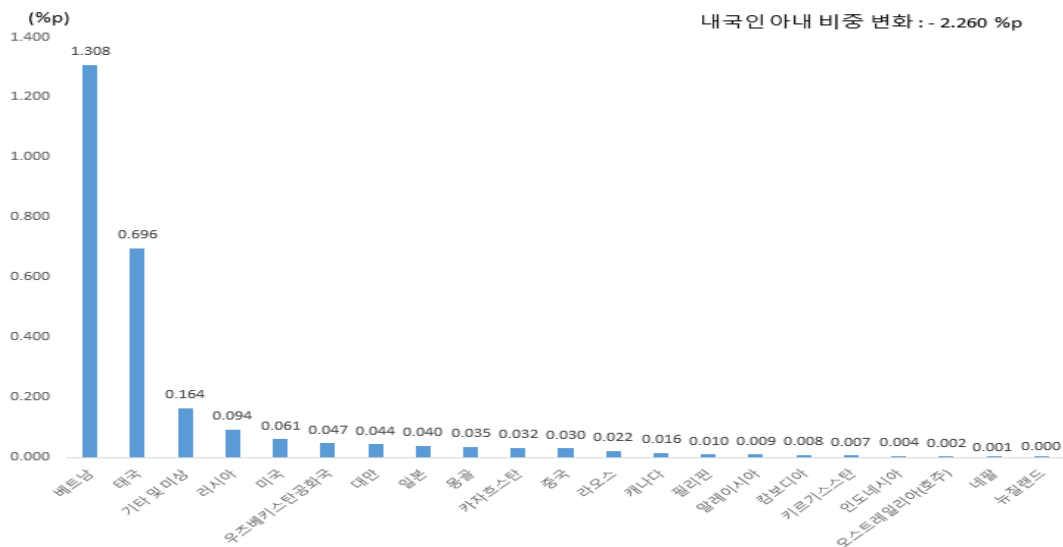
- 남성의 경우 내국인 간 혼인이 201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국제 혼인은 증가하면서 남성의 전체 혼인(내국인 아내 + 외국인 아내)<sup>5)</sup>에서 국제 혼인(외국인 아내)의 비중은 2015년 4.95%에서 2019년 7.58%로 크게 증가하였음
  - 국제 혼인 비중의 증가는 대부분은 베트남(1.308%p)과 태국(0.696%p)에 의해 기여되었지만 다른 국가와의 혼인 비중도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 따라서 남성의 경우 내국인 아내보다는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혼인 대상국 대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3) 특정 종교에서 갈등이 많은 집단(백인과 흑인, 한국인과 일본인, 유대인과 아랍인 등) 간의 혼인을 장려했으며, 많은 단체 혼인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종교적 혼인이 2000년대 한·일 간 국제 혼인을 주도하였음

4) 우리나라 남성의 일본여성과의 혼인도 종교적 사유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남성의 전체 국제 혼인에서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종교적 사유가 약해진 이후에도 자연 발생적으로 매년 약 1,000여 건 수준의 혼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여성의 일본 남성과의 혼인(2019년 265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상황임

5) 남성의 전체 혼인은 ‘내국인 간 혼인’과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 혼인’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여성의 전체 혼인은 ‘내국인 간 혼인’과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의 국제 혼인’을 합산한 것을 의미함

〈그림 5〉 남성의 전체 혼인 중 혼인 대상국별 비중 변화(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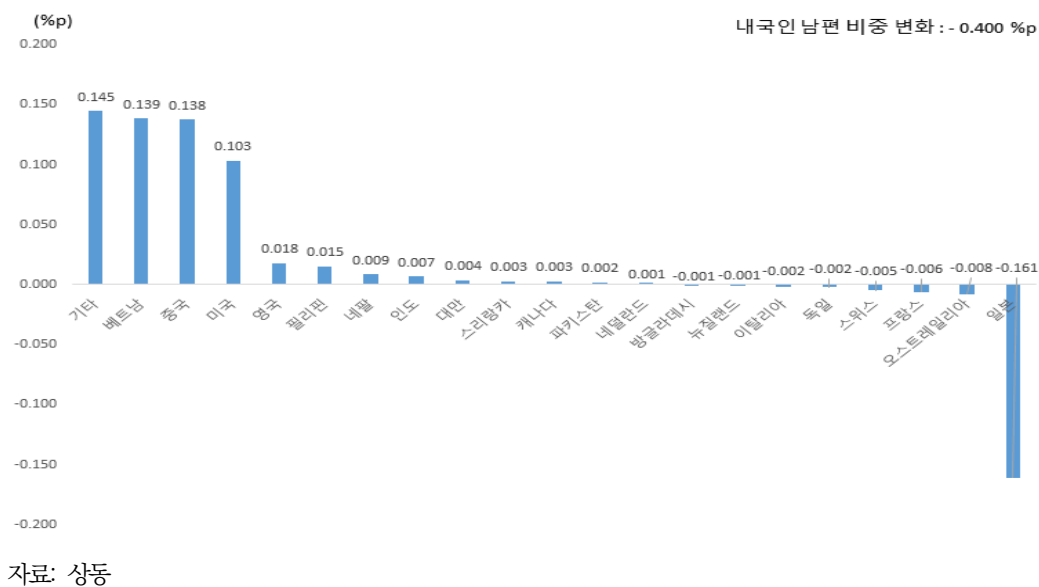


자료: 상동

- 여성의 경우 내국인 간 혼인과 국제 혼인 모두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 혼인(내국인 남편 + 외국인 남편) 중 국제 혼인의 비중도 2015년 약 2.29%에서 2019년 2.69%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 특히, 혼인 대상국 20개국(‘기타’는 제외) 중 12개국의 비중은 확대되고 8개국은 비중은 축소되었으며, 그나마도 비중 변화의 절댓값이 0.1%p 이상 되는 경우는 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큰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음
  - 또한, 대표적으로 비중이 증가한 베트남, 필리핀 등의 경우 다른 국제 혼인과는 다소 다른 성격<sup>6)</sup>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여성은 내국인 간 혼인 및 국제 혼인 모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혼인 대상국별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비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외국인 아내로 입국하여 내국인이 되었으나 이혼, 사별 등으로 무배우 상태가 된 이후 출신국 남성과 혼인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경우 통계적으로는 ‘내국인 여성의 국제 혼인’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한국 출신 내국인 여성의 국제 혼인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림 6〉 여성의 전체 혼인 중 혼인 대상국별 비중 변화(2015~2019년)



####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남성의 국제 혼인 의존도 심화의 배경에는 ‘결혼 기피 현상 속의 성비 불균형 심화’가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제 혼인 의존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혼인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혼인 기피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됨(〈표 1〉 참조)
  - 남성의 일반혼인율은 2015년 13.9에서 2019년에는 10.8로 크게 하락했으며 여성의 경우도 같은 기간 13.7에서 10.6으로 유사한 하락폭을 보였음<sup>7)</sup>
  - 연령별 혼인율도 남녀 모두 혼인 적령기를 포함하는 20~39세 구간의 대부분 연령대에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 기피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일반혼인율은 ‘15세 이상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함. 일반혼인율뿐 아니라 연령별 혼인율도 남녀 모두 혼인 적령기를 포함하는 20~39세 구간의 대부분 연령대에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일반혼인율 및 연령대별 혼인율 변화(2015,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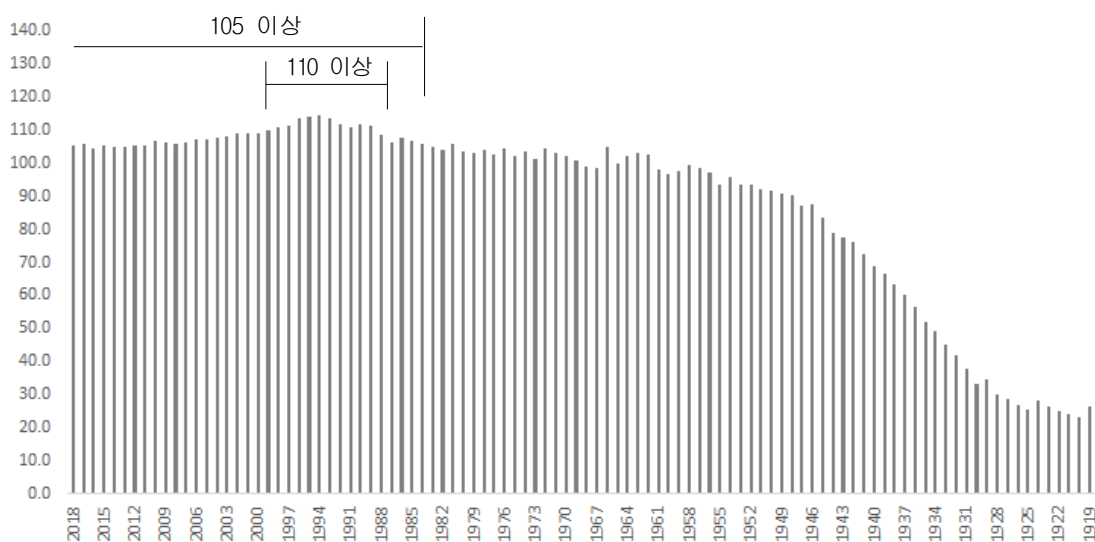
(해당 인구 천 명당 건수)

| 종사자 규모   | 구분 | 남성   |      | 여성   |      |
|----------|----|------|------|------|------|
|          |    | 2015 | 2019 | 2015 | 2019 |
| 일반혼인율    |    | 13.9 | 10.8 | 13.7 | 10.6 |
| 20 ~ 24세 |    | 5.2  | 3.3  | 15.5 | 10.1 |
| 25 ~ 29세 |    | 41.2 | 27.8 | 72.9 | 50.4 |
| 30 ~ 34세 |    | 62.4 | 51.1 | 51.8 | 46.9 |
| 35 ~ 39세 |    | 25.1 | 22.9 | 15.7 | 15.7 |

자료: 상동

- 남성의 국제 혼인 증가는 기본적으로 성비가 매우 불균형한 세대가 혼인 적령기에 접어들기 시작되면서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그림 7〉 참조)
  - 우리나라 남녀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1984년생(현 36세)부터 105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생(현 31세)부터 1999년생(현 21세)까지는 110을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남
  - 따라서 결혼 적령기 남성의 성비불균형은 향후 상당기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7〉 출생년도별 남녀 성비(2018년 기준)



주: 검은색 막대는 남녀 성비가 110을 넘는 구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전반적인 혼인 기피 현상과 성비 불균형으로 내국인 신부의 상대적인 부족 현상은 장기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제 혼인에 대한 의존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교류 위축으로 국제 혼인이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 사회는 혼인 기피, 저출산 등에 따라 인구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제 혼인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피 현상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 혼인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국제 혼인을 통해 형성된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국적 중에 거주할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성과 개방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sup>8)</sup>
  - 내국인 간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로 경제적 지원 중심의 대책이 강구되어 왔으나, 이와 더불어 어 양성 간의 갈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 ‘혼인 기피 현상 속 성비 불균형 심화’ 현상과 이에 따른 남성의 국제 혼인 증가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내국인 간 혼인이 감소하고 남성의 국제 혼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녀 없이 노년을 맞이하는 내국인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다음 세대의 어머니 중 외국 출신의 비중이 많아짐을 의미함
  -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나 노·노 가구의 문제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문제 등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kiri**

8) 사회적 포용성과 개방성의 중요성은 동남아시아의 고속 성장이 지속되고, 경제 여건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국가와의 국제 혼인이 증가하면서 더욱 중요해질 것임

9) 노인자녀세대와 초고령 부모노인세대로 구성된 2세대 노인가구를 의미함